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김주연5	1-2	리브가	본인	김준수3	1교구	청년부	김순진
박인준1	8교구	청년부	이요한5	정회영	7교구	청년부	이요한5

교회소식

◆ 모임

1.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연극부 모임 - 18일(주) - 7월 23일(주)까지 오전 10시 606호
2. 한나전도회 월례회 - 18일(주) 3부 예배 후 603호

◆ 알림

1. 세례식 - 금년도 세 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입교, 유아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랍니다.

◆ 장례

1. 故 김두란 성도(3교구 정종석 집사의 모친, 이경화 집사의 시모) / 6월 17일(토) 별세, 6월 19일(월) 발인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영어성경부	10시10분-11시	8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802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6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기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환난을 이기고 ”

■ 데살로니가전서 1:2-10

지난 2천년의 교회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는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피의 터전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들로서 어떤 신앙의 다짐이 필요한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박해에 직면한 교회

데살로니가는 교통 무역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고 20만 인구의 대도시였고 많은 로마의 신전들이 건립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동과 박해의 과정을 극복하고 나서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박해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 16:20에서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 수가 많거나 대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비록 소수이지만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충격을 주고 혼돈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극복하고 도시 역사를 새롭게 했고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전국에서 강남구의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도시에 충격을 주고 거룩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박해를 이긴 교회

처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거친 박해에 직면했는데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이를 견디지 못한 바울 일행은 베뢰아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쫓아가서 괴롭히고 군중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당했을 시련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비밀리에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습니다.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여러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표준삼을 만큼 훌륭한 교회가 되어있다고 보고합니다. 시험과 박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박해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등입니다. 나도 박해에 직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도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실 것이며 나도 반드시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시험을 이기고 박해를 극복하고 더 성결하고 복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는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열광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이를 일컬어 종말론적 신앙이라 부릅니다. 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흠 없는 신앙생활을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살전 5:23) 언제나 정상적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살이의 화려함과 길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 자랑에 심취하지 않고 오직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땅 위에서의 칭찬과 상급에 관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의 한 마디 주님의 칭찬을 더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야 세상 현실을 이유로 배교하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김혜언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김혜언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김승록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호 6:1-2...	인 도 자
예배로 부름	호 6:1-2...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계
기 원	인 도 자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 찬 송	14(1, 4절)...	다 함 계	기 도		말 은 이
* 신앙고백		다 함 계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 성서 교육	42(시 98)...	다 함 계	교회 소식		인 도 자
* 송 영	4	다 함 계	성경 봉독	살전 1:2-10...	말 은 이
기 도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찬 송	597...	다 함 계	설 교	“환난을 이기고”...	손달익 목사
성경 봉독	살전 1:2-10...	인 도 자	결단의 기도		다 함 계
성도의 교제		다 함 계	봉 헌		다 함 계
봉헌		다 함 계	* 봉헌기도		설 교 자
* 봉헌송	634...	다 함 계	* 파 송		찬 양 팀
* 봉헌기도		인 도 자	* 축 도		설 교 자
찬 양		찬 양 대	* 후 주		찬 양 팀
새가족 환영		다 함 계			
설 교	“환난을 이기고”...	손달익 목사			
* 찬 송	456...	다 함 계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계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조현경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살전 1:6)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성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전재홍 목사	한대석 집사
목 도		다 함 계
성 시	시 149:1-2	인 도 자
찬 송	264	다 함 계
기 도		말 은 이
찬 송	552	다 함 계
성 경	요삼 1:1-4	인 도 자
세례식		손달익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더 기쁜 일이 없도다” ...	전재홍 목사
* 찬 송	458	다 함 계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계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현종필 목사	남은희 권사
II 오후 7시	현종필 목사	나현주1 권사
성 경	왕하 1: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	손달익 목사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월 19일(월) - 24일(토)

오전 5시

설 교

금요기도회

홍해작전 기간 중

개인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